

칼 헨리(Carl F. H. Henry)의 기독교사회윤리에 대한 고찰
- 그의 책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
를 중심으로 -

송동민 (백석대 기독교철학 석사과정 수료)(대1-1)

논문초록

이 논문은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칼 헨리(Carl F. H. Henry)의 기독교 사회윤리 사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복음주의자들과 교회가 사회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활동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헨리는 고전적인 그의 저서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에서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헨리의 정치관 전반을 살핀 후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 초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기독교적인 사회 사상을 더 심도 있게 탐구하는 것과, 기도와 노력으로 이 사회를 좀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주제어: 근본주의, 복음주의, 사회 윤리, 하나님 나라, 칼 헨리

I. 서론

교회와 사회의 관계는 언제나 기독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신자로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신앙 생활을 해 가는 한편, 삶의 현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회에 속하여 사회 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이다. 신자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 문제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권고하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들이나 선지서들을 비롯해 초대 교회의 신자들이 이교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속에서도 뚜렷한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초의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다양한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정화하고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해 가야 할 위기와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사회윤리는 오늘날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기독교사회윤리에 접근하는 데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택한 방법은 과거의 어떤 사상가가 취했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성찰하는 것이다. 필자는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¹ 신학자 칼 헨리를 택하여 그가 취했던 입장을 고찰해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교회사의 다른 시대들에 비해 20세기 미국 사회와 21세기 초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즉 시대적, 문화적으로 가까우며), 그가 취한 신학적 입장도 현재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칼 헨리가 누구인지, 정치에 대한 칼 헨리의 전반적인 관점은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저서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1947)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본 후, 그의 논의에 대해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칼 헨리는 누구인가?

칼 헨리(Carl Ferdinand Howard Henry, 1913. 1. 22 - 2003. 12. 7)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풀러신학교의 설립에 관여했으며 미국의 주요 기독교 정기간행물 중 하나인 *Christianity Today*의 초대 편집장을 지냈다. 원래 그는 독일계 이민자 Karl F. Heinrich의 아

¹ 여기서 '복음주의'는 종교개혁의 신학적 전통과 영국의 청교도주의, 미국의 청교도주의와 1, 2차 대각성 운동에 깊이 영향을 받은 현대 영미권의 신학적 흐름을 뜻한다. 현대의 복음주의는 (1)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념과 (2)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 (3)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물리적 부활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믿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 <http://en.wikipedia.org/wiki/Evangelicalism> 참조.

들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1933년 6월 10일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1935년 복음주의 계열의 기독교대학인 휘튼 칼리지에 입학하여, 1938년에 학사를, 1941년에 석사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나서 북침례교 신학교(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1941년에 신학사 학위를, 194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49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은 그가 1947년에 출판한 첫 저서이며, 같은 해에 그는 해롤드 오켄가, 에드워드 존 카넬 등과 함께 풀러신학교의 설립을 도왔다. 1956년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래함의 지원으로 창간된 Christianity Today의 초대 편집장이 되어 1968년까지 사역하였다. 칼 헨리는 그의 책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 뿐 아니라 그가 12년간 편집장으로 봉직한 미국의 중요한 기독교 잡지 Christianity Today의 사역을 통해서도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가장 주된 저서는 6권으로 된 God, Revelation, and Authority로서 1976년에 첫째 권이 나왔고 1983년에 완간되었다. 그는 2003년에 9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2. 정치에 대한 칼 헨리의 전반적인 관점²

이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헨리의 정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 세상에서 정부의 역할과 위치는 무엇인가? (정치 참여의 토대에 관한 문제)
- (2)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시민 사회의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실천적인 문제)
- (3)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호해야 하는가? (변증에 대한 문제)

(1) 이 세상에서 정부의 역할과 위치는 무엇인가?

헨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지상의 정부들이 갖는 권한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되는 파생적인 것이라고 말한다(Weeks, 127). 그 정부들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주신 선물들로서, 정의를 촉진하고 불법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는 법을 제정할 때 일반적인 정의의 원칙들을 구현하는 일이다. 헨리에 따르면, 정부의 임무는 이 땅 위에 완전한 미덕과 정의, 곧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정의(universal justice)를 구현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정부들이 해야 할 일은 사회 속에 상대적인 정의(relative justice)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 정의는 곧 개인들의 행동을 적절하게 다스릴 수 있는 표준을 의미한다(Henry, 1982: 414).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의는 공정성과 평등, 균형을 요구한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정의’(δικαιοσύνη)의 개념을 두 가지로 이해한다(Henry, 1982: 453-54). 하

² 이 부분의 논의에서 나는 David L. Weeks (2006)의 논의에 크게 힘입고 있다.

나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구속적인 의이다(마 1:19; 막 6:20; 눅 1:17, 2:25, 23:50; 롬 1:17 등).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의이다. 그러나 또다른 종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베드로가 세례를 준 로마의 백부장 코넬리우스와 같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의이다(행 10:22, 35). 이 의는 사회적인 차원의 정의, 곧 공정성과 양심적인 삶을 의미한다.

국가 권력의 목표는 바로 이 후자의 의미에서 제한된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 있다.³ “타락한 사회 속에서 정의는 모든 사람들의 시민적인 권리와 정치적인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평하기 때문이다.”(Henry, 1982: 407) 공적 영역에서 원칙에 근거하여 사려깊은 판단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공정성과 평등, 균형을 유지하는 정부가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삶과 소유가 갖는 가치’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 어떻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현되느냐가 정부의 공정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2)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시민 사회의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헨리는 교회의 역할을 주의깊게 규정한다. “이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은 영적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정치적인 질서에 끼치는 영향력은 반드시 간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영적인 관심사에 대한 부산물로서 말이다.”(Henry, 1964: 105) 그에 따르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갖는 주된 책임은 설교와 제자 삼는 일에 있다.”(Henry, 1976: 27) 또한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본모습을 보여야 하고, “신자 개개인들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면하며”,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나라들을 심판하실 그 계시된 원칙들”을 해석하고, “이교의 권력자들을 포함한 모든 권력자들이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법을 어기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실행하기를 거부하는 권력자들을 비판해야 한다.” 교회는 협소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거나, 실제적인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정부가 사회 전반에 교회의 신학적인 신념을 법적으로 강요하도록 정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Weeks, 132)

헨리에 따르면, 신자들 개개인의 첫째 되는 의무는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국가의 법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위반되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도록 요구할 때 뿐이다.”⁴ 이 두 경우 모두에, 우리는 시민 불복종의 결과를

³ “성경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 그러나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상대적인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확인한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고, 평화와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국가를 세우셨다는 사실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 국가들이 정의와 질서를 보존하게끔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시고(빌 2:10) 재림하실 때 ‘사람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마 12:18)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국가들이 기껏해야 땅가진 정의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앞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류 역사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의는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과 나라들은 창조주이며 만물의 주이신 분의 뜻과 다스림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Henry, 1982: 414).

⁴ “나라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하도록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그랬듯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신자 개개인의 두번째 의무는 “정의와 인간의 선이 진보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의 한계에 이르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Henry, 1979: 70). 우리는 정의를 추구할 때 필요하다면 비기독교인들과도 타협하며 일할 필요가 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부는 종종 절대적인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과 덜한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Weeks, 132)

(3)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호해야 하는가?

헨리에 따르면, 선한 법들을 지지하는 일에서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그 뜻을 반영하는 윤리적인 동기들”을 파악해야 하고, 그 법들을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토대들 위에서 지지해야 한다. 이는 곧 “일반적인 선, 사회적 동의를 바람직한 측면들, 그리고 남아 있는 최상의 문화 유산들의 토대 위에서” 그 법들을 지지해야 함을 뜻한다(Weeks, 137). 이것은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은총(common grace), 곧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 있는 인간의 선한 부분들에 호소해야 함을 뜻한다.

일반 은총과 창조에서 기원한 윤리를 그 논리적 결론까지 끌고 가면 기독교 사상의 오래된 전통인 자연법(natural law) 사상의 전통에 이르게 된다.⁵ 그러나, 워스(Weeks)에 따르면 헨리는 자연법 사상을 거부한다. 그것은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그의 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자연 속에 두신 자연법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헨리에 따르면, “타락한 사람은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역사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고의로 훼손한다.”(Henry, 1976: 223)

그렇다면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 헨리에 따르면 그 유일한 해결책은 특별 계시인 성경에 있다.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지성을 밝히며, 타락한 인류에게 진리를 계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는 사회 윤리에 대한 그의 접근 전반에서 “중생”(regener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변혁을 위해 영적인 중생에 의존해야만 한다.” 중생만이 인간의 성품을 충분히 변화시키며, “사람들의 의지를 생명의 주이며 창조주이신 분의 목적에 새롭게 복종시킨다.”(Weeks, 133) 인간의 모든 사회 문제들 속에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것은 오직 복음 전도를 통한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일들을 정치의 영역에서도 추구해 나가야 한

드러내 놓고 그들이 충성을 다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행 5:29)” (Henry, *Christian Mindset in a Secular Society*, 122-23, quoted in Weeks, 132.)

5 자연법 이론은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 대표자로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창조하시고, 그 자연 안에 항구적인 중요성을 갖는 질서와 법칙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자연법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이며, 사람의 행동이 타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합리성을 갖는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창조하셨으며, 또 그들을 이성의 원리를 지닌 존재들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성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곧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된다. <http://plato.stanford.edu/entries/natural-law-ethics/> 참조.

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하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복음주의적인 공적 철학(public philosophy)을 개발하고, 공적 이성을 사용하며, 공적인 양심에 호소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⁶

3.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로 살펴본 칼 헨리의 사상

1947년에 처음 출판된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은 약 80여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작은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후 20세기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사회관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20세기 중반에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근본주의 운동과 구별되는 흐름으로 갈라져 나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⁷ 이 책은 모두 여덟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 근본주의에서 사라진 인도주의, (2) 예견되는 실패에 대한 항의, (3) 가장 당혹스러운 복음주의의 분리, (4)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우려, (5) 십자가에 달린 근본주의자라는 강도, (6) 새로운 세계 지성을 위한 노력, (7) 복음주의적인 “항의의 공식”, (8) 새로운 종교개혁의 여명이다.

19세기 내내 유럽을 풍미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20세기 초반 미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계몽주의 사조와 성경에 대한 비평학의 발달로 생겨난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오성이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등과 같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들의 진실성을 부정했다. 17세기 청교도 운동과 18세기 대각성 운동, 19세기 부흥 운동 등의 보수적인 전통을 이어받아 온 미국 교회에 이러한 유럽 신학의 영향이 밀려왔을 때, 주로 장로교와 침례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인 신앙의 근본 교리들을 굳게 지키려는 신자들의 움직임이 생겨났고, 이들을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s)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들의 핵심적인 특성은 다섯 가지 교리들에 대한 충성으로서 곧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의 역사적 실제성이다.⁸ 헨리 자신의 표현으로 하면, “근본주의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로서 초자연적인 것을 성경적인 관점의 핵심적인 일부분으로 여기는 신앙이다.”(Henry, 1947: 5).⁹

6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러한 복음주의적인 공적 이성과 양심을 개발시켜 가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서울: SFC 출판부, 2005)와 idem., 『광장의 신학』(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0; idem.,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서울: 나눔과 섬김, 2010) 등을 보라.

7 2003년도에 재판된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에 폴리신학교의 총장 Richard Mouw가 쓴 서문과 <http://www.christianitytoday.com/ct/2010/january/25.30.html>에 실린 Mouw의 글 “Carl Henry Was Right”을 참조하라.

8 George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박용규 역,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idem., *Understanding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91). 홍치모 역, 『미국의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이해』(서울: 성광문화사, 1992)을 참조하라.

9 이 글에서 Carl F. H. Henry,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에서의 인용은 2003년도 Eerdmans 출판사에서 재판한 판본의 책 면수를 표기한다.

이 책의 1장에서 헨리는 당시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미국 사회 전체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금 사회를 정돈하기 위해 애쓰던 그 시점에 근본주의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헨리에 따르면, 전통적인 기독교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초자연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론적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근본주의자들은 사회 복구와 개선에 관심이 없는가 하고 묻는다. 당시 미국 사회를 괴롭히고 있던 인종 차별이나 불관용, 주류 판매 문제, 노동 착취 등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복음주의자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헨리는 사회 정의와 국제 질서의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건전한 개인적 윤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고 묻는다. 간단히 말해서, 위대한 기독교 전통의 한 표현인 근본주의에서 이웃을 널리 위하는 인도적인 정신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헨리의 분석이다.

2장에서 헨리는 복음주의 기독교가 점점 더 복음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대의 지성인들이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는 동안, “기독교의 역사적인 메시지는 서구 문명의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는 죽은 것으로 여겨져 임의로 무시되고 있다.” 근본주의에 따르면, 죄악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의 상태와 그 죄인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인간론과 구원론만이 이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모든 방법들은 헛수고이며, 인간을 구속하는 복음에 대한 하나의 반발이다. 그러나 현대 복음주의는 기독교의 위대한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헨리는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을 뒤집어엎을 열정이 없는 기독교는 사도적 기독교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은 비기독교적인 집단들과의 협력 관계를 주의깊게 피했지만, 복음이 갖는 폭넓은 사회적 의미를 펼쳐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헨리에 따르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근본주의자들의 종말론과도 관계가 있다. 근본주의자들의 대다수는 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믿었고, 공통적으로 현재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완벽한 사회 질서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복음주의자들 역시 그러한 사회 질서의 개선과 향상에 큰 기대를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한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였던 구속의 복음은, 이제 세상에 저항하는 메시지의 차원으로 협소해져 버렸다.” 어거스틴이 그의 책 *The City of God*에서 보여 주었던 호방한 기독교적 사회 사상은 이제 현 시대에는 구현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헨리는 이렇게 지적한다. “자신의 체계 안에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근본주의자들의 실패였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세계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피난처를 찾으려는 성향을 보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위기에 처한 현대 세계와 복음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단절시켜 버렸다.”

3장에서 헨리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주의 기독교는 위대한 사회 개혁 운동에서 분리된 채로 남아 있다.” 종교개혁기의 기독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가 소유한 성경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언제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구속적인

메시지가 갖는 함의를 20세기 세계인들의 삶에 존재하는 커다란 도덕적 문제들에 적절하게 연관짓는 데 실패하고 있다.” 헨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과 허약한 자들,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던 것을 지적하며, “전인적인 필요, 또는 세계적인 인류의 필요에 무관심한 복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헨리는 두 가지 큰 원칙들을 언급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한다. 첫째, 기독교는 모든 종류의 개인적인 악과 사회적인 악에 반대한다. 기독교는 그러한 악을 어떤 식으로든 결코 묵인할 수 없다. 둘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님의 중생시키시는 사역의 결과로 세워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악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된다.

4장에서 헨리는 ‘하나님 나라’ 개념과 사회 개혁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근본주의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구현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비로소 임할 영적 실재로 보았다. 따라서 현재의 이 세상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구속적인 요소, 즉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구속(redemption)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본 점에서는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 민주주의적인 사회가 전체주의적인 사회보다는 여러 면에서 더 좋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달리 그 사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다. 근본주의자들은 현 사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을 적절하게 반박했지만,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현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어떻게 적절히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신체적 부활과 미래의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를 현 세계가 처한 문화적 위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으로 선포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¹⁰ 많은 부분에서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비판적인 자세로 사태를 지켜보는 관망자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다고 헨리는 분석한다(Henry, 1947: 44).¹¹

헨리는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전체를 다시금 새로이 진지하게 탐구함으로써, 복음의 위대한 진리들이 현대인들의 정신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성경적인 역사철학을 세울 필요성과 구속 경륜의 놀라운 통일성을 숙고할 필요성을 언급한다.¹² 그 개념들은 복음이 이 세상과 갖는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

¹⁰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가 어떻게 해답이 되는가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로는 역시 Francis Schaeffer와 C. S. Lewis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영미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중요한 노력들로 David F. Wells, *Above All Earthly Powers: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Eerdmans, 2005). 윤석인 역, 『위대하신 그리스도』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와 Joh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VP, 1992). 한화룡, 정옥배 공역,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1993), idem.,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s: Zondervan, 1984).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05)를 보라.

¹¹ 미국의 교회사가 Joel Carpenter도 근본주의의 성경 해석법과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공적 영역에서 겪은 실패 등이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사회적인 무관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Joel A. Carpenter, *Revive Us Again: the Reawakening of American Fundamen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05-7. quoted in Pruitt, 48.

¹² 성경적인 역사철학을 세우는 일과 구속 경륜의 통일성을 숙고하는 일은 오늘날 더욱 더 절실한 과제로 여겨진다. David W. Bebbington, *Patterns in History: A Christian Perspective on Historical Thought* (Vancouver: Regent College Publishing, 1990). 김진홍, 조호연 공역, 『역사관의 유형들』 (서울: IVP,

에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해야 할 과제는 (1)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 세상에 임하여 있으며, (2) 어떤 의미에서 그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더욱 더 실현되어야 하고, (3)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실현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¹³

헨리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예수께서 도입해 들이신 그 나라는, 중생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최고선이 실현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지상의 국가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구속적인 의미가 그 핵심에 오지 않는 어떠한 국가와도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었다. …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활동의 초점이 구속하신 왕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과 권세들이 그분께 복종할 것이기 때문이다.”(Henry, 1947: 49)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 개개인과 그들을 구속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영적인 관계이다.”(ibid., 50).

헨리에 따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노력을 기울이는가가 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범위를 결정한다. 그 나라는 구속의 실현이 그 핵심에 있는 영적인 나라로서, 이 지상의 어떤 나라와도 동일시될 수 없다. 비록 어떤 나라들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돕고,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의 건설을 방해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만약 지상의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와 충돌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라 영적인 혁명으로 그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고 헨리는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정치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헨리는 이렇게 그의 논의를 정리한다. “현 시대의 복음주의는 (1) 구속의 메시지가 전 지구적인 위기에 갖는 연관성을 되새겨야 하며, (2) 위대한 복음주의의 가르침들을 세계적으로 강조하고, (3) 세계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황을 기독교의 고유한 특성에 모순되는 것으로 여기는 메시지들을 버리며, (4) 부차적인 논쟁들에 복음주의의 힘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는 적절한 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종말론적인 신념들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Henry, 1947: 54)

5장에서 헨리는 “쇠락하고 있는 현대 문명을 향한 메시지는 반드시 현재적인 형태로 들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이 세계(the world now)를 뒤흔들 수 있는 윤리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대면해야 한다.” 근본주의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적인 교리와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한에서만 기독교다운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헨리에 따르면, 기독교의 삶의 방식 중 중요한 일부는 바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려는 열정이다. 그것이 없다면, 참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 헨리는 복음주의자들이 곤란에 빠진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

헨리에 따르면, “역사적인 기독교의 초자연주의적인 틀만이 현대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¹⁴ 그 해답은 플라톤적인 관념론도 아니고, 키에르케고르적인 실존

1997)과 Cornelius Van Til, *Common Grace and Gospel*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73);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Carlisle: Banner of Truth, 1975). 이승구 역, 『성경신학』 (서울: CLC, 1985) 등이 그 사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¹³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해 더 깊이있게 살펴보려면 Geerhardus Vos, George E. Ladd, Herman Ridderbos, Graham Goldsworthy 등의 성경학자들이 쓴 책들과 성약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는 김홍전 목사님의 책들, 그리고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5) 등을 보라.

¹⁴ 이것은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 프란시스 웨퍼(1912-1984)가 매우 강조하며 주장하는 그의 핵심적인 사

주의도 아니며, 히브리-기독교적인 구속주의(Hebrew-Christian redemptionism)를 재확인하는데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근본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서술하는데, 그 내용이 다소 길지만 그가 이해하는 근본주의의 핵심이 되기에 모두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근본주의는 이 우주가 순전히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곳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도덕적인 곳이라고 주장한다. 근본주의는 베르그송이 말한 ‘생의 약동’(élan vital)이나 시간-공간과 같은 비인격적인 궁극자들 대신에 인격적인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근본주의는 자연주의적인 진화가 아니라 신적인 창조가 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독특성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 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근본주의는 인간이 현재 처한 곤경은 동물적으로 유전된 결과나 그의 본성의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러 의지적으로 반역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근본주의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본주의는 성경이 인류의 수많은 종교적 기록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견해에 반대하여,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비추어 주는 계시라고 주장한다. 근본주의는 인류의 역사가 주로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를 따르는 대신에,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이 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일들과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근본주의는 인류의 미래가 열려져 있는 문제가 아니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최후의 심판 때 있을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Henry: 1947, 58)¹⁵

헨리는 복음주의가 세계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속적인 메시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에, 복음주의는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의 분야 모두에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헨리는 근본주의의 인간관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덕적인 의로움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다. 인간의 타락은 칼빈이 말하듯 그의 의지적인 선택에서 왔다는 것이다(Calvin, Inst. 2. 1. 11).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구속의 은혜가 임하면 더 나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악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Henry: 1947, 66).

헨리는 이 부분에서 근본주의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비평들을 언급한다(Henry: 1947, 60). 그에 따르면, 개혁주의자들은 근본주의가 일반 은총(common grace)에 대한 가르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¹⁶ 일반적으로 근본주의 신학이 인간 사회와 문화 전반을 부정적인 것으로

상이기도 하다. 쉘퍼의 책들 *The God Who Is There, Escape from Reason,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등을 참조하라.

¹⁵ 헨리의 이 포괄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그로 하여금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게 했던 근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자서전에서 헨리는 자신이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본 실재와 삶에 대한 정합성 있고 포괄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데에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 James Orr의 *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the World*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히고 있다. Carl F. H. Henry, *Confessions of a Theologian: An Autobiography* (Waco, TX: Word Books, 1986), quoted in Pruitt, 20.

간주해 온 것으로 여기는 통념에 반해, 여기서 헨리는 근본주의의 인간관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¹⁷ 그에 따르면, 인간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걸림들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니라, 중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에 있다.

그는 교육에 관하여 두 가지 과제를 언급한다. 첫째로는 복음주의자들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초등 교육에서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수준을 포괄하는 적절한 교과서들을 집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주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어야 한다. 둘째, 헨리는 대중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전파하는 일에 복음주의적인 학교들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한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처했던 초대 교회와 같이 다시금 매우 적대적인 환경을 변혁시켜야 하는 사도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린 세대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침으로써 이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복음주의적인 초중등학교들과 대학교가 필요하며, 교회가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그는 역설한다.

헨리는 또한 정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를 돌보는 일은 다른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회가 전체주의적인 절대주의 성향으로 흘러가거나 고립된 개인주의 사회로 흘러갈 때 복음주의자들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며, 또 사회가 구속적인 요소가 결합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복음주의는 언제나 어떤 공동체의 참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해야 한다. 우주의 참된 주인을 무시하는 권력은 찬탈적인 것이다. 인간 존재의 가치는 오직 구속적인 맥락에서만 보장될 수 있으며, 인간이 누리는 합당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세속주의적인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살아계시는 구속주께 초월적인 영적 토대를 두지 않고는 어떤 국가도 해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의 핵심은 구속적인 요소에 있으며, 지치고 곤고한 세상 문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속적인 요소이다. 헨리는 복음주의자들이 그 구속적인 요소가 결합된 세상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등의 정치적 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도라고 지적한다. 구속적인 기독교만이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UN을

16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전통에서 발원한 일반 은총의 교리와 미국의 근본주의 사회 사상은 서로 비교해서 탐구해 볼 만한 주제로 여겨진다. (cf. George Marsden, *Reforming Fundamentalism: Fuller Seminary and the New Evangelic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95], 78-80.) 참고로 20세기 가톨릭 교회에서 발전되어 온 사회 사상도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떤 입장에 있는지도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계통의 개혁신학자들이 일반은총론에 관해 했던 논의들은 대표적으로 20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Abraham Kuyper와 Herman Bavinck, 미국의 변증학자 Cornelius Van Til의 논의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Abraham Kuyper, "Common Grace," in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ed. James D. Bratt (Grand Rapids: Eerdmans, 1998), 165-204; Herman Bavinck, "Calvin and Common Grace," in *Calvin and the Reformation*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9), 99-130; Cornelius Van Til, *Common Grace and Gospel*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73); David VanDrunen,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Reformed Social Thought* (Grand Rapids: Eerdmans, 2010); 송인규, "일반 은총: 개혁과 신학 내에서의 상이한 견해들(1)", 『신학 정론』 25권 1호 (2007), 117-168; 송인규, "일반 은총: 개혁과 신학 내에서의 상이한 견해들(2)", 『신학 정론』 26권 1호 (2008), 262-335 등을 참조하라.

17 칼빈도 *Institutes* (1559) 2. 2. 13-16에서 인간에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사회에 선한 것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통해 국제적인 평화를 구축하거나, 핵을 감축하거나, 노동자들의 수당을 올려주는 일, 굶주리는 제3세계의 국가들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모두 좋은 일들이다. 그러나 그 일들 자체만으로는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있게 만드는 구속적인 은혜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복음주의는 구속적인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한다.”고 그는 결론을 내린다. 복음주의자들은 “군사적인 침략이나 정치적 자연주의, 인종 차별, 주류 판매, 노사 간의 불균형을 비롯한 모든 잘못된 일들에 대한 투쟁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Henry: 1947, 78)

8장에서 헨리는 이 책의 논의를 정리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죄악된 인류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이 죄악과 자멸에서 구원받을 때에만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헨리는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한다. 인간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통해 신자들을 중생시키실 뿐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회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헨리는 말한다.

4. 칼 헨리의 논의에 대한 간단한 고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헨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신앙과 복음의 메시지가 갖는 중요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라고 여겼던 미국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반대로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쏟고 사회 문제 해결에 무관심했던 당시 미국 근본주의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휩쓸리지 않으면서 성경적인 사회 참여의 관점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헨리는 “개인의 구원과 중생이 사회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는 그의 책 *Uneasy Conscience*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논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개개인들의 도덕적 선택이 곧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이미 ‘개인들의 집합체’를 넘어서는 차원의 새로운 역학 구조를 가진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닐까? 헨리의 입장을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의 선한 도덕적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는 ‘선’의 개념 자체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적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복잡한 현실에 좀더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기독교적 사회 사상을 탐구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¹⁸

¹⁸ J. Gresham Machen도 그의 책 *Christianity and Liberalism*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들을 회피함

라인홀드 니버는 “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 개개인을 놓고 볼 때에는 각 사람이 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 집단의 행위는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면서, 헨리와는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인홀드 니버가 자신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를 통해 자신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처럼, 헨리도 어떻게 개개인의 구원과 중생이 사회적 차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논증했다면 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특히 그의 책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을 중심으로 하여 칼 헨리의 기독교 사회윤리 사상을 살펴보았다.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대한 그의 신중하면서도 확신 있는 선언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호소력 있는 요청으로 다가오고 있다. 적어도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의 말처럼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것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은 현대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며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How)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연 오늘날의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적인 신앙의 확신과 사려깊은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 관심사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헨리도 말했듯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사회적 견해들을 공적인 영역(public arena)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주의적인 공적 철학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아마 그것이 바로 헨리가 그의 책에서 웅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개시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수없이 많다. 보수-진보로 갈라진 이념 대립의 문제, 남북 갈등과 화해의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장애우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 지나친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등 건강한 사회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해 왔듯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좌충우돌을 거듭할 뿐, 결코 진정한 회복과 개선을 누리보지 못하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으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는 헨리의 말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는 결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각 문제들에 뛰어들어 이론적, 실천적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 결론은 오직 우리의 땀과

으로써 문제를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현대 산업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까지 예수님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 월요일 아침이 되면 자신의 신앙을 등 뒤에 내려놓고 길을 나서는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고백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고 말한다.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1923. Repri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155, quoted in Pruitt, 54.

눈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만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당면하는 사회 문제들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그 사회 문제들의 실상은 무엇이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할 때 그 문제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지를 깊이있게 생각하는 일(이론적인 작업). (2) 실제로 그 문제들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고 관여하면서,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방향으로 해결되어 가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일(실천적인 작업). 이러한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게 감당하여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찬호 (2006). 『칼 헨리: 복음주의 신학의 대변자』. 서울: 살림출판사.
- 이승구 (2005).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 서울: SFC 출판부.
- _____ (2010). 『광장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0).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서울: 나눔과 섬김.
- Budziszewski, J (2006). *Evangelicals in the Public Squar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Grenz, Stanley & Olson, Roger (1992). *20th-Century Theology: God and the World in a Transitional Age*. 신재구 역(1997). 『20세기 신학』. 서울: IVP.
- Henry, Carl F. H (1947).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47; Reprint. Grand Rapids: Eerdmans, 2003. 박세혁 역(2009).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 서울: IVP.
- _____ (1976). *God, Revelation, and Authority*, vol. 1. Waco: Word; Reprint. Wheaton: Crossway Books, 1999.
- _____ (1979). *God, Revelation, and Authority*, vol. 3. Waco: Word; Reprint. Wheaton: Crossway Books, 1999.
- _____ (1982). *God, Revelation, and Authority*, vol. 6. Waco: Word; Reprint. Wheaton: Crossway Books, 1999.
- Pruitt, Nicholas T (2009). "Neo-evangelical Realism: Reflections on the Sociopolitical Thought of Carl F. H. Henry." M. A. thesis, Baylor University, Waco, TX.
- Weeks, David L (2006). "Carl F. H. Henry on Civic Life," in J. Budziszewski, *Evangelicals in the Public Squar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23-39.

http://en.wikipedia.org/wiki/Fundamentalism#Christian_Fundamentalism_Today

<http://plato.stanford.edu/entries/natural-law-ethics/>

<http://en.wikipedia.org/wiki/Evangelicalism>